

대학생의 소비자재무지식, 소비자 재무행동, 소비자재무교육 요구도

The Financial Educational Needs, Financial Knowledge Level,
and Financi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보건복지부
사무관 손주영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puty Director : Joo-Young Soh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levels of financial knowledge, to identify the financial education needs of college students, and to show how financial knowledge and education needs correl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economy was the highest among the seven categories, whereas the overall level of financial knowledge was less than 50%. The need for financial education was relatively high in various topics of financial management, especially financial planning and saving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level and educational needs except between financial planning and investment. Students who understand financial planning better want more financial education.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were not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receiving allowance and assistance in tuition payment, so their financial experiences were limited. Students who understood financial management showed greater need of financial education and had more financial experience.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ed that college should provide formal financial education as an elective course,

* 주저자, 교신저자 : 손주영 (joo_sohn@hanmail.net)

which should include content related to financial planning and various financial products.

Key Words : 대학생(college students), 소비자재무지식(financial knowledge level), 소비자재무교육요구(financial education needs), 소비자재무행동(financial management)

I. 서론

IMF이후 지속 되어온 금융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금융 대처능력 향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저금리시대를 맞아 저축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복잡한 금융환경에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과 같은 소득의 불안정이 재무적 관리 필요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백만 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용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준비가 부족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금융지식수준 측정결과(금융감독원,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고등교육은 대학시험을 위한 학습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질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경제지식이나 금융지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향신문, 2005, 7, 14일자).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시도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지식이 자신에게 맞는 미래설계를 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은행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20대의 36%가 금융이용에 대한 재무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저축의 필요성이나 소비생활과 관련된 기초적 지

식수준으로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연구되었다(국민은행연구소, 2002). 74만 명이 넘는 20대의 신용불량자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재무관리능력 부재상태에서의 경제적 자립은 사회생활을 신용불량으로 시작하게 되어 장기적인 금융장애인이 될 위험성을 높여준다.

특히 최근 신입사원채용 과정에서 관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대학생들의 신용사용에 대한 교육은 시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생들의 신용사용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신용에 대한 태도와 재무적인 실행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궁극적인 대학생의 신용불량 문제는 신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부족과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교육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대학생들의 이러한 신용관련 행동은 학교를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Hayhoe et al, 2000; Gallo, 2003). 한편 한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신용카드에 따른 위험이나 연체로 인한 비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YMCA, 2001) 연체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신용관련 행동에서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다 (김경자, 2002; 국민은행, 2002).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서인주, 두경자, 2003)에서 카드 분실, 도난에 따른 대처방법 및 보상방법에 이어 신용카드의 합리적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대학생들 스스로도 신용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용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일회적인 재무관련 경제교육은 지금도 많이 실시되고 있고 신문지나 여러 매체를 통하여 관련된 지식과 정보는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재무교육이 기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편적 정보제공은 실질적인 재무계획이나 재무관리행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의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회적인 교육으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금융 환경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재무소비자로 행동하기 어렵다(김경자, 1998).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시기가 금융과 관련된 재무교육을 받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국민은행, 2002), 대학교육에서의 소비자재무교육은 성인이 된 후에 실질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비자금융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정규과목으로 소비자재무교육의 실시는 미래의 건전한 재무소비자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경자 & 홍정하, 2002; 김영신, 2005)

IMF 이후 경제 불안과 취업시장의 불안을 경험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현장 경험이나 인턴사원 형태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심과 재무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아직은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경자, 2003). 등록금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용돈도 80%이상 부모에게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제적 자립은 미국 대학생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용관리를 포함한 재무관리행동을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립의지도 높지 않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대학생의 의존적인 재무의식과 행태는 노후를 준비해야하는 중년기의 부모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점차 늦어지고 있는 첫 자녀 출산을 감안한다면 가구주는 직장생활에서 퇴직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에 자녀의 대학교육과 결혼자금의 목돈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노년을 준비할 기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재무독립은 부모세대가 재무적으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무지식 수준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이 자립적인 소비자재무관리 행동을 어느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재 대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재무적으로 독립된 한 사회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를 예측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소비자재무교육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생이 요구하는 소비자재무교육 내용과 요구정도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소비자재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소비자재무지식에 관한 연구

미국 4학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재무지식과 경험이 충분한가에 대한 연구(Markovich & DeVaney, 1997)에 의하면 신용에 관한 지식수준은 4점 기준에 0.77로 매우 낮았고 비상금과 보험에 관한

지식수준에서는 5점 기준에 2.76점을 보여 중간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고 투자에 관한 지식수준은 12점 기준으로 5.78점으로 낮았다. 3영역의 점수를 합하여 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측정 한 결과 21점 기준의 9.31의 낮은 수준을 보여서 미국 대학생들의 재무준비정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백은영외 2인의 연구(2004)에서는 미국대학생의 재무행동문제와 관련하여 재무교육의 학습여부로 재무지식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조사대학생의 25%정도가 정규재무교육을 받았으며 26.5%만이 재무지식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학습한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대학생의 재무지식의 수준이 재무관리행동에 충분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신혼부부의 재무지식 수준과 재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Parrotta & Johnson, 1998) 갓 결혼한 조사대상자들의 재무지식수준은 0.86으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33%정도가 재무관리훈련을 한 것으로 답하여 생활에 필요한 재무지식을 비교적 잘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식과 금융정보 요구수준에 대한 김경자의 연구(1998)에 의하면 금융지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52.8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특히 저축과 투자에 대한 점수가 4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지식수준과 금융정보에 대한 요구수준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지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소비자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지식과 관련하여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수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약관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배순영 등(199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였는데 평균 51

점 (21점 만점에 10.7점)으로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의 금융지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최현자와 이지영(200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결과 평균 40.11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폐관리 영역에서의 점수가 35.70으로 가장 낮았으며 지출과 부채영역에서의 점수가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재무설계 및 재무일반에 대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대학생의 재무지식수준을 측정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지식을 측정 한 연구와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측정하는 연구만 있을 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무지식을 측정하는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인으로 독립적인 재무행동을 시작하는 시기를 대학 졸업이후로 볼 때 대학교육에서의 재무교육은 성인이 된 후에 실질적인 소비자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적절한 시기이고 대학생활동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재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재무지식 수준을 측정하여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정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재무교육에 관한 연구

소비자재무교육, 소비자재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별로 다양하게 소비자재무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1991년도 실시된 Pope와 Howe의 미국 대학생들에 대한 재무설계 과목

에 대한 요구조사에 의하면, 개인재무설계와 관리에 대한 내용에 6점 likert 점수로 측정된 결과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은 4.4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은퇴계획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재무자원과 지출에 대한 분석, 세금관리와 같은 현재의 재무관리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Bae 와 Sandager의 연구(1997)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사로부터 얻고자하는 정보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은퇴계획, 자산증가를 위한 투자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의하여 “Jump Start”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소득, 자금관리, 지출과 신용, 저축과 투자의 4개 영역에서 다양한 재무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과 단기적인 청소년의 용돈 관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인생설계에서부터 자신의 장단점에 맞춘 기술개발과 직업선택 등 실질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게임과 학습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http://www.JumpStart.org>)

우리나라에서의 재무교육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소비자재무설계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윤정혜외 6인, 2001)에서 소비자재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재무교육의 내용은 생애주기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이어야 하고 사회공동체적인 가치를 지향하여야 하며 확장된 생활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방향에 기반하여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폐관리교육 프로그램이 소비자교육의 조기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발되었다. 돈의 가치, 미래설계, 용돈관리, 저축 및 투자, 소비지출과 구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등학생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성영애외 5인, 2001).

초·중·고등학교 교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분석한 최현자와 최은진의 논문(2005)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31개 금융소비자 교육내용 중 41.9%의 내용요소만이 다루어지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 총 67개 요소중 35.8%의 요소만이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더 증가하여 65.9%의 내용이 교과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학교에서의 불충분한 금융교육이 우리나라의 금융문맹을 낳았고 최근의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인주와 두경자(2003)의 연구에서 신용카드의 분실 및 도난시의 대처방법과 보상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신용카드의 합리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요구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신용카드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학교에서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과 합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내용에 국한하여 연구되어왔고 특히 교육 내용이 소비자금융 상품선택이나 용돈관리에 제한되어 있어서 재무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충분히 다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교육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의 신용불량자 문제가 대학생의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재무교육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신용카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용카드교육은 재무관리 교육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재무적으로 독립되고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하기에는 그 내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무자원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대학생 소비자재무행동에 관한 연구

대학생이 수행하는 재무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비자재무지식과 관련되어 특정재무지식이 대학생의 재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Markovich와 DeVaney(1997)는 신용사용, 보험과 비상금관리, 투자 영역에 대한 재무지식을 측정하여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재무행동과 관련하여 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대학생의 반 이상이 대출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관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연체이자 부가시점을 40%의 대학생이 알지 못하고 있어서 48.8%의 대학생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지식에 대한 만족도가 자신의 재무관리능력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재무지식을 늘리기 위하여 대학생에게 재무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정훈의 연구(1993)에서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재무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이 금전관리 지식과 관리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집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위험에 대한 준비, 금전관리의 실행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경자(2003)가 재무목표의 여부, 재무계획의 여부, 소득과 지출의 기록여부, 소득과 저축 및 신용관리행동을 재무관리행동으로 포함하여 대학생의 재무행동을 연구한 결과, 일반적인 재무설계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비성향은 90%가 넘게 나타났고 저축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효정의 대학생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2005)에서는 예산세우기, 쇼핑리스트 기록하기, 영수증 보관하기, 소득과 지출 기록하기, 저축하기, 재무목표 세우기, 용돈사용 후 평가하기를 재무관리행동으로 정의하고 신용카드이용집단과 비이용집단으로 나누어 재무관리행동을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신용카드이용집단에서는 성별, 학년, 소비자교육경험, 부의 직업, 월가계소득, 화폐에 대한 태도(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기분전환의 수단), 소비자 신용에 대한 태도(계획적 지출, 부정적 인식)가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고 신용카드 비이용집단에서는 학년, 소비자교육 경험, 부의 직업, 화폐에 대한 태도(성공의 상징, 미래에 대한 준비, 인색한 태도), 소비자신용에 대한 태도(계획적 지출, 조건적 허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신의 연구(2005)에서는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으로 예산 기록, 쇼핑목록 작성, 구매 후 후회, 영수증 보관, 지출계획, 규칙적 저축, 할부구매, 재무관리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 규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수강 경험, 성별, 용돈의 크기, 한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에 대한 태도나 아르바이트 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소비자재무관리 행동은 매우 미미하여 영향분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신용카드사용도 활발하지 않아서 그 행동간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기할 점은 소비자재무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재무관리행동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소비자재무교육을 통하여 대학생의 관리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인이 되어서도 소비자금융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재무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1) 대학생을 위한 소비자재무교육 현황
- 2) 대학생 재무지식수준과 소비자재무교육 요구도
- 3) 대학생 소비자재무행동

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두개의 자료수집 과정을 거쳤는데 우선 대학생을 위한 소비자재무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위하여 2005년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설과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과 소비자재무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할 만한 경영대학, 사회대학, 생활과학대학(또는 가정대학)들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과목들 수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재무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소비자재무지식 및 소비자재무교육 요구도, 소비자재무행동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6년 9월 14일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문구와 이해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한 후 본 조사는 2006년 10월 19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 있는 5개 대학의 대학생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대학별로 1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42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는데 (회수율 85.2%) 이 중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19부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407부의 자료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빈도(%)	변수	빈도(%)
성별	남 143(35.1)	거주 부모님과 함께	300(73.7)
	여 264(64.9)	형태 기숙사(하숙)	107(26.3)
학년	1 106(26.0)	상	12(2.9)
	2 141(34.6)	생활 중상	123(30.2)
	3 91(22.4)	수준 중	218(53.5)
	4 69(17.0)	중하	44(10.8)
		하	10(2.5)

조사대상 대학생은 남학생이 134명 (35.1%), 여학생이 284명 (64.9%)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6명 (26.0%), 2학년이 141명 (34.6%), 3학년이 81명 (22.4%), 4학년이 68명 (17.0%)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이 300명으로 74%정도의 분포

를 보이고 107명의 대학생만이 기숙사나 하숙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중 많은 대학생이 스스로 생활을 관리해 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거주형태는 그들의 재무행동과 재무 지식에 상당한 차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우리나라 대학생은 대부분 기숙사 또는 자취생활을 하는 미국대학생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동기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을 보면, ‘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12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3%가 되지 않고 ‘하’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10명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평가는 중간정도를 중심으로 약간의 높다 또는 약간 낮은 정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도구

대학생의 소비자재무지식과 소비자재무행동 및 소비자재무교육 요구도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재무관리에 관련된 각각의 영역에 대해 대학생이 실질적으로 재무관리에 관련된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질문, 두 번째는 재무관리 각각 영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 요구정도를 측정하는 질문,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인구학적인 질문과 재무행동에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인식정도는 금융활동에 관련된 지식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청소년의 재무지식에 대한 측정을 위한 설문지와 Winsconsin에서 대학생의 소비자 금융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참조하여 20문항으로 만들어졌다. 대학생의 재무지식수준에 대한 점수는 20문항중 맞은 개수에 5점을 곱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지식수준을 산출하였다.

소비자재무행동과 관련된 세부영역에 대한 구분은 소비자재무관리 관련서적의 구성내용을 참고하여 “재무환경”, “재무설계”, “신용”, “예금”, “보험”, “투자”, “세금”의 7가지 영역에 20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소비자재무관리교육 요구도를 4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였다. 대학생의 소비자재무행동에 대한 설문내용은 백은영 외 2인의 연구(2004)에서 재무관리행동을 토대로 대학생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재무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9개 항목으로 작성하였다. 용돈관리와 관련하여 3가지 항목, 등록금 조달방법, 은행이용, 신용카드 수, 투자와 보험에 대한 경험, 경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대학생의 소비자재무행동을 측정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지식수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평균과 전체 평균과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요구도는 평균점수로 순위를 보았으며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 요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지식수준과 요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a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소비자재무행동에 대한 사항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요구도와의 관계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대학생을 위한 소비자재무교육의 현황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은 최근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의 문화교실과 사회복지기관에서 문화교실, 또한 금융관련의 인터넷을 통한 재무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교육기관은 대학생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우선 학교생활과 병행해야하는 시간적 제약과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으로 대학생이 소비자재무교육을 위해 학교외의 기관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을 위한 소비자재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학교에서 전공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재무교육의 현황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하겠다.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31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2006년 개설과목을 분석하였다. 우선 각 학교별로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대하여 제목중심으로 소비자재무와 관련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그 과목들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재무활동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최종 선정하였다. 경영학과와 경제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 중에 재무·경제에 관련된 제목들이 많이 있었다. <투자과 재무>, <금융시장>, <증권투자> 등과 같은 과목들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었지만 이들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업행동에서의 재무관리와 투자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대학생들의 소비자재무 교육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제외하고, 개인이나 개

별가계를 위한 소비자재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들을 <표 2>에 정리하였다. 과목들이 개설되는 형태에 따라서 수강학생에 대한 범위와 과목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형태를 구분하여 보았는데 우선 교양과목은 전공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재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9개 대학에서만 교양과목으로 16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전공과목은 대부분 경영학과와 생활과학(가정)대학에 개설되어 있었고 8개 대학에 13개 과목이 개인이나 개별가계를 위한 재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표 2> 대학의 재무과목 개설현황

개설구분	대학수	과목수
교양	9	16
전공	9	14

개설과목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우선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은 재무설계와 가계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생활재정>, <생활경제>, <시장경제의 이해>, <교양재테크>, <금융과 재테크>가 있었고 특정재무내용을 다루고 있는 <현대생활과 보험>, <부동산투자입문>, <증권시장의 이해>, <주식투자의 이해>, <금융생활> 등이 있었다. 한편 전공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는 재무교육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설계와 관련하여 재무전반에 대한 설계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가계재무교육>, <소비자재무설계>, <소비자포트폴리오>, <가계재정관리>이 있고 특정 재무상품에 관한 내용으로 <가계금융론>, <가계의 투자와 보험>, <투자과 재무>, <부동산과 생활경제>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특히 전반적인 재무교육을 위한 과목들은 총

30개 과목 중에서 11개 과목이고 나머지 과목들은 특정 재무상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대학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도 독립적인 재무활동을 하는 한 성인으로서의 준비교육으로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2. 대학생 소비자재무지식 수준과 소비자재무교육 요구도

대학생의 재무지식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이 <표 3>에 나타나 있는데, 대학생의 재무지식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100점 기준으로 45.95점으로 나타나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이해력 점수와 비교하여 보아 크게 차이가 없는 점수임을 알 수 있다. 그 점수 분포를 보면 25점 이하인 학생이 70명으로 기본적인 재무지식이 거의 없이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75점을 넘는 학생은 단지 8명으로 대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에 재무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각 하위 영역별로 그 점수를 살펴보면 경제환경에 대한 평균점수가 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투자에 관련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일반적인 경제개념 관련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재무금융활동 중에서 대학생이 쉽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36점)과 신용(40점)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게 나타나서 대학생이 실제 생활에서 금융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양한 금융변화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소비자재무지식수준 및 소비자재무교육요구도

영역	전체	경제환경	재무설계	신용	보험	예금	투자	세금
지식점수	45.85	71.74	44.72	40.05	48.40	38.48	18.08	81.18
요구도	3.08	2.88	3.28	3.08	3.07	3.22	2.80	3.22

이에 비하여 조사대상 대학생의 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보면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설계의 한 영역으로 교

<표 4> 소비자재무지식수준 일원분산분석결과

영역	지식수준	경제환경	재무설계	신용	보험	예금	투자	세금
성별: 여	45.9	73.9	43.9	38.9	49.2	36.7	15.9	62.3
남	45.9	67.6	46.2	42.1	46.9	36.0	22.0	59.2
F	0.001	3.50*	0.40	2.07	0.21	0.10	4.75*	0.63
학년: 1	42.2 a	67.6	37.3 a	36.2	47.2	34.9	16.5 a	55.4
2	45.0 ab	70.2	43.6 a	40.4	46.8	35.5	17.0 a	59.6
3	48.9 b	77.7	53.9 ab	43.3	47.3	36.3	15.4 a	65.9
4	49.5 b	73.4	46.3 b	40.9	55.1	41.3	26.1 b	67.2
F	2.74*	1.70	4.15**	1.93	0.49	0.39	2.51*	2.11

* p<.05, ** p<.01

a, b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과 세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신용관리에 대한 요구도는 4점 likert 기준으로 3.06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투자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대학생의 투자활동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산 축적 이후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재무지식과 요구도를 성별, 학년,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식수준에서는 남녀간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여자 대학생이 높았고 투자에 대한 지식은 남자 대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무지식수준에 차이를 보여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재무설계와 투자에 대해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부모와 동거 여부와는 재무지식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교육요구도를 살펴보면 요구도 합계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재무설계와 예금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여자대학생이 높았고,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예금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재무지식 수준과 요구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투자와 재무설계 항목에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투자와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무설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에 대한 경제적 지식을 가

〈표 5〉 소비자재무교육요구도 일원분산분석결과

영역	요구도	경제환경	재무설계	신용	보험	예금	투자	세금
성별: 여	61.62	15.02	6.54	9.26	6.17	6.54	11.65	6.45
남	60.44	14.64	6.28	9.00	6.04	6.26	11.83	6.38
F	2.11	2.79	4.63*	2.39	1.43	4.92*	0.61	0.39
부모와 동거	61.07	14.86	6.47	9.12	6.10	6.35	11.73	6.45
하숙/기숙사	61.57	14.96	6.38	9.31	6.21	6.64	11.66	6.38
F	0.31	0.16	0.44	1.17	0.95	5.37*	0.07	0.27

* p< .05, ** p<.01

〈표 6〉 소비자재무지식수준과 소비자재무교육요구도간의 상관관계

영역	요구도	경제환경	재무설계	신용	보험	예금	투자	세금
지식점수	0.053	0.018	0.039	-0.013	0.040	0.064	0.080	0.043
경제환경	0.056	0.054	0.061	-0.011	0.016	0.062	0.062	0.031
재무설계	0.095	0.045	0.098*	0.001	0.067	0.088	0.117*	0.083
신용	-0.001	-0.020	-0.017	-0.021	0.008	0.022	0.036	-0.025
보험	0.117*	0.115*	-0.043	-0.143**	-0.108*	-0.079	-0.031	-0.094
예금	0.057	0.038	0.020	0.037	0.056	0.062	0.030	0.069
투자	0.062	-0.002	0.017	0.048	0.064	0.009	0.118*	0.037
세금	0.062	0.030	0.040	-0.005	0.056	0.084	0.063	0.072

* p< .05, ** p<.01

〈표 7〉 조사대상자의 소비자재무행동

재무행동 (평균)	구분	빈도 (%)	재무행동 (평균)	구분	빈도 (%)
아르바이트 여부	예	131 (32.2)	등록금 조달방법	부모님	312 (76.7)
	아니오	276 (67.8)		학생 스스로	11 (2.7)
아르바이트 형태	과의	93 (71.0)		음자	30 (7.4)
	음식점/편의점	25 (19.1)		장학금	54 (13.3)
	기타	13 (9.9)	통장 (1.87)	보통통장	361 (88.7)
	용돈액수 (37.29)	10만원 이하		7 (1.7)	적금통장
10만원초과-20만원		63 (15.5)		신탁통장	2 (0.5)
20만원초과-30만원		140 (34.4)	보험 가입 여부	예	171 (42.0)
30만원초과-40만원		97 (23.8)		아니오	236 (58.0)
40만원초과-50만원		55 (13.5)	신용카드수 (0.65)	은행카드	150 (36.9)
50만원초과-60만원		24 (5.9)		카드회사카드	50 (12.3)
60만원초과	21 (5.2)	백화점		34 (8.4)	
핸드폰 사용액수 (5.2)	2만원미만	8 (2.0)	투자경험	예	26 (6.4)
	2-4만원미만	121 (29.7)		아니오	381 (93.6)
	4-6만원미만	144 (35.4)	경제신문 구독	예	62 (15.2)
	6-8만원미만	64 (15.8)		아니오	345 (84.8)
	8-10만원미만	22 (5.4)			
	10만원이상	48 (11.8)			

진 학생들이 투자를 위한 새로운 정보를 더 필요로 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재무설계에 대한 지식이 높은 대학생은 투자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정보와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지식이 모든 항목에 대한 요구도에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지식은 재무관리에 관련된 교육요구에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는 대학생의 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고 보험 상품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위험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아직 가정생활을 책임지고 있지 않는 대학생에게는 관심의 대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대학생 재무행동

대학생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재무행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조사대학생의 74%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68%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전적으로 자신의 용돈을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쓰는 학생은 21%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생은 재무관리의 기본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에 의존적인 대학생의 용돈규모는 10만원에서 100만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다. 평균용돈액수는 37만원으로 58%의 대학생이 한달에 20만원에서 40만원의 용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 사용액수는 월 평균 5만원이 넘었으

〈표 8〉 소비자재무관리경험과 지식수준 · 교육요구도 상관관계

영역	지식수준	요구합계	경제환경	재무설계	신용	보험	예금	투자	세금
재무관리 경험	0.039	0.134**	0.093	0.071	0.055	0.137**	0.162**	0.101*	0.102*

* p< .05, ** p<.01

며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12%나 되었다. 한편 핸드폰 사용액을 자신의 용돈에서 충당하고 있는 학생은 23.8%로 많은 대학생이 자신의 소비지출에 대한 관리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금의 경우도 77%가 부모님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용자를 받는 경우는 7%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축에 있어서 89%의 학생이 보통통장은 하나 이상 가지고 있지만 이는 단지 기본적인 금융거래를 위하고 대학에서 학생증과 통장을 연결하여 스마트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축으로 볼 수 있는 적금통장이나 신탁통장을 가진 학생은 19%정도에 불과하여 대학생들의 저축성향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은 42%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하여 보험가입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보험 상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를 한 개 이상 가진 학생은 41% 정도로 2개이상 카드를 가진 학생은 3%에 불과하여 신용카드로 인한 문제를 보이고는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신용관련 지식수준이 40점 정도로 낮은 것으로 보아 신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용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상품과 재무관리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신문 구독을 하고 있는 대학생은 15%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경험은 더욱 적어서 8.4%의 학생만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재무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금융활동도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축활동으로 재무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특히 예금과 투자 등 금융상품에 관련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소비자재무지식 수준과 소비자재무행동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요구정도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소비자재무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5개 대학의 대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31개 4년제 대학에서 소비자재무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18개 대학으로 총 30개 과목 중에서 11개 과목만이 전반적인 소비자재무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나머지 과목들은 특정 재무상품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소비자금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대학의 관심부족은 학생들을 위한 재무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속적

인 재무관리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경우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백은영 외 2인, 2004).

둘째, 대학생의 소비자재무지식 수준은 평균 45.95점으로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예금상품과 투자에 대한 지식이 낮게 나타나서 대학생이 이후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에 대한 이해부족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잘 설명해 주며 대학에서의 정규적인 교과 과정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의 재무지식수준이 낮은 것에 비하여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4점 기준으로 3.08로 높아서 대학생 스스로 재무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설계와 예금상품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아직 재무경험이나 지식이 낮은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재무계획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쉽고 안정적인 예금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Markovich & DeVaney, 1997).

셋째, 대학생의 소비자재무지식과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만 성별간에 경제환경과 투자에 관한 지식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학년이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재무교육 요구도에서는 여학생이 재무설계와 예금상품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숙이나 기숙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 예금상품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의 재무지식의 차이는 다른 연구(Markovich & DeVaney, 1997; 김정훈, 1993)와는 다르게 여학생에서 재무설계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투자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우가

높아서 남녀간 재무관심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백은영 외 2인, 2004). 또한 하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금상품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서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기숙사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참여요구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재무지식수준과 교육요구간의 상관관계 결과에 의하면 재무설계와 투자 항목에서 재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금융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이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무설계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학생은 투자에 대한 교육요구도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의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인이나 가계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급선무인것을 알 수 있다(김효정, 2005).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소비자재무행동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대학생 중 32%만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용돈과 핸드폰 사용금액을 부모에 의존하고 있으며 적금이나 투자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1개이상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41%이고 용돈으로 월 3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은 42% 학생들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부모들에 의하여 가입된 것으로 상품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대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이며 금융활동에 소극적이어서 충분한 재무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무행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소비자재무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재무지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학에 일반교양 과목으로 소

비자재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0대에 신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규적인 학교 교육의 부족이라는 지적(경향신문, 2005; 국민은행, 2002)에서 보여주듯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재무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재무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지식수준과 교육요구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지식이 선행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스스로 소비자금융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1학년에서부터 교양과목으로 소비자재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면 소비자금융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저축과 재무관리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대학생활기간 동안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의 교과 과목에 대한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이 소비자금융과 재무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보다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과정만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생애에 따른 소비자재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식이 부족하게 되고 신용이나 소비에 의한 재무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일회기의 행사적인 교육으로는 단편적인 정보 전달에 그칠 수 있어서 오히려 투자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게 되어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재무교육은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개설하여 기본적인 금융환경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애설계에 맞추어 재무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양학부를 운

영하는 대학에서 기존의 교과목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비자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대학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전한 생활인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모에게서 떨어져 생활하는 기숙 또는 하숙 대학생들의 재무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를 중심으로 소비자재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재무상담을 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하는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소비태도와 가치를 심어주고 보다 적극적인 재무관리행동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대학생의 소비자재무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모의존도가 높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경험이 적어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재무교육에 욕구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키워주고 재무의사결정의 경험을 늘리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투자경진대회나 재테크 동아리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행사나 동아리 참여를 통하여 소비자재무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을 쌓으며 소비자재무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재무교육 참여를 증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규적인 교과과정과 함께 대학생의 재무지식수준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소비자금융생활 태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후 대학생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무지식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재무행동과 태도에 변화에 대한 분

석을 하므로써 소비자재무교육의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경향신문. 금융교육이 경쟁력이다 (2) 시대 반영 못하는 학교교육. 2005.7.14일자 14면 특집.
- 2) 고려대학교. 2005년 3월 28일자 고대신문 “본교생의 경제 자립도 낮다”.
- 3) 국민은행(2002). 20대의 소비·금융형태. 국민은행연구소.
- 4) 금융감독원(2004). 청소년(중학생) 금융이해력 측정결과 보고서.
- 5) 김경자(1998).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금융정보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3), 106-116.
- 6) 김경자(2003). 인터넷상의 재무설계 관련 프로그램 실태와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103-111.
- 7) 김경자, 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재무관리 형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7-122.
- 8) 김영신(2005). 대학생의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신용카드 사용행동의 합리성에 대한 인과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5-26.
- 9) 김정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 10) 김정훈(1993). 남녀대학생들의 금전관리 관련 행태와 인식. 소비생활연구 11, 43-54.
- 11) 김효정(2005).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7), 79-91.
- 12) 배순영, 민현선, 여정성(1996). 보험소비자의 약관에 대한 지식과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1), 281-294.
- 13) 백은영, 배미경, 이승신(2004). 재무교육이 미국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8), 219-233.
- 14) 서인주, 두경자(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1(12), 117-132.
- 15)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윤정혜, 이희숙, 최현자(2001). 아동소비자의 화폐관리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11-129.
- 16) 윤정혜, 김경자,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89-108.
- 17) 최현자, 이지영(2005). 중학생의 금융이해력수준과 금융소비자교육요구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300-301.
- 18) 최현자, 최은진(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소비자학연구 16(3), 109-132.
- 19) YMCA(2001).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실태 조사보고서.
- 20) Bae, S.C. & Sandager, J. P. (1997). What consumers look for in financial planne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2), 9-16.
- 21) Hayhoe, D. R., Leach, L. J., Turner, P. R., Bruin, M. J. & Lawrence, F. C. (2000). Differences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1), 113-133.
- 22) Markovich, D. A. & Devaney, S. A. (1997). College seniors personal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61-65.
- 23) Parotta, J. L. & Johnson, P. J.(1998). The

impact of financial attitudes and knowledge on financial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cently married individual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59-74.

24) Pope, R. A. & Howe, T. S. (1991).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students interested in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79-96.

- 접수 일 : 2008년 01월 15일
- 심사 일 : 2008년 01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2월 25일